



KIA 타이거즈가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연습경기에서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해 한국시리즈 1차전 리허설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선발로 나와 3이닝을 소화한 제임스 네일과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양현종 그리고 솔로포를 기록하고 그라운드를 도는 김도영. <KIA 타이거즈제공>

KIA 베스트 멤버 총출동...한국시리즈 리허설 '후끈'

롯데와 연습경기... 네일·양현종·정해영 등 마운드에 올라 김도영·한준수 홈런포... 이범호 감독 "계획대로 되고 있다"



미리 보는 한국시리즈 1차전이 펼쳐졌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연습경기를 소화했다. 제임스 네일이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고, 김도영은 앞선 연습 경기에 이어 다시 한번 담장을 넘겼다. 한국시리즈 1차전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되는 네

일과 함께 '경험'으로 압도하는 양현종 그리고 장현식, 전상현, 정해영이 연달아 마운드에 등장했다. 또 톱타자 박찬호(유격수)를 시작으로 소크라테스(좌익수)-김도영(3루수)-최형우(지명타자)-나성범(우익수)-김선빈(2루수)-이우성(1루수)-김태균(포수)-최원준(중견수)으로 라인업이 구성됐다. 마운드는 물론 타석에도 베스트 멤버가 가동되면서 한국시리즈 리허설이 펼쳐졌다. 지난 9일 상무야구단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마운드에 복귀한 네일은 이날도 매서운 피칭을 이어가

면서 한국시리즈 기대감을 키웠다. 네일은 1회를 9개 공으로 정리했다. 황성빈은 초구에 유격수 땅볼로 잡았고, 운동화는 5구째 헛스윙 삼진, 손호영과는 3구 승부 끝에 땅볼 타구를 직접 1루로 송구해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선두타자 나승엽을 유격수 땅볼로 잡은 2회초, 네일이 이정훈에게 중전 안타는 허용했지만 정대신을 3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신우후의 땅볼을 처리하던 3루수 김도영의 송구 실책이 나왔지만 유격수 박찬호가 이호준의 높게 뜬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 낚아채면서 이닝을 정리했다. 3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네일은 정보근을 2루 땅볼로 잡은 뒤 황성빈과 윤동희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등판을 마무리했다. 31구를 소화한 네일의 성적은 3이닝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 이날 네일은 투심(147~150km·11구)

과 함께 스윙퍼(129~135km·10구), 커터(141~144km·6구), 체인지업(138~141km·4구)을 구사했다. 3번 타자 김도영은 앞선 연습경기에 이어 다시 한번 담장을 넘겼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기록한 김도영은 6회에는 2사에서 진승현을 상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142km 직구를 공략한 김도영은 178.9km 타구 스피드로 비거리 131.9m의 솔로포를 만들었다. 김태균에 이어 투입된 포수 한준수도 손맛을 봤다. 2-2로 맞선 7회 1사 1-2루에서 타석에 선 한준수는 이병준 139km 직구를 받아 중앙담장 살짝 넘어가는 스리런을 장식했다. 타구속도는 164.5km, 비거리는 122.1m를 기록했다. 두 번째 연습경기를 진행한 이범호 감독은 "계획

대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한국시리즈 때 어떤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것을 1차전으로 맞추고 있다"며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주문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움직임은 가벼워 보였다. 자체 연습경기나 라이브 등을 통해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겠다"고 밝혔다. 페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김도영은 "감이 진짜 좋다. 좋은 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시리즈 때 감이 떨어질까 내심 불안도 하지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가 나와서 내 스윙을 돌리자는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가랑비가 내리는 등 곳은 날씨에도 이날 챔피언스필드에는 6744명이 입장해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여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대회신기록·다관왕 쏟아져

제105회 전국체전 4일째
제105회 전국체전 4일째인 14일에도 광주·전남 선수단의 대회신기록과 다관왕이 쏟아졌다. '단거리 명가' 광주시청의 고승환이 대회신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2연패를 기록했다. 고승환은 이날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육상 남자 200m 결승선을 대회신기록인 20초51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고승환은 2년 전 자신이 작성한 20초 55 기록을 깨고 1위를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이재성(광주시청)은 고승환과 불과 0.02초 차이인 20초53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체조 유망주 문건영(광주체고)은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체조 남자18세이하부 철봉(3.650점)과 평행봉(14.325점)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치러진 개인종합 결승에서 82.466점을 획득하며 1위에 올랐던 문건영은 이날 3관왕에 등극했다. 조정에서는 광주체고가 4개의 금메달을 수확하

광주시청 고승환 육상 200m 우승
문건영 철봉·평행봉 등 벌써 3관왕
전남 이은빈 육상 200m 등 2관왕
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체고는 김해남동강조정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18세이하부에서 쿼드러플스킬(김בל-김정민-김지선-서에서), 더블스킬(김정민-김승현), 더블스킬결량급(서에서-김지선), 싱글스킬(김승현)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육상 이은빈(전남체고)이 2관왕에 올랐다. 이은빈은 이날 18세이하부 200m경기에서 개인신기록인 22초44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100m경기에서 11초76으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을 차지했던 이은빈은 2관왕이 됐다. 우수에서는 윤웅진(전남도청)이 산청군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남일부 산타 56kg 결승에서 정주용(경남)을 상대로 승리하며 체전 6연패를 이뤘다. 김민수(전남도청)도 남일부 산타 60kg 결승에서 강지현(부산)에 2-0 승리를 거두며 3연패에 성공했다.



고승환(오른쪽)과 이재성
이은빈
블링에서도 금메달이 나왔다. 광양시청 블링팀 최복음·김동현·백승민은 양산 김스블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일부 3인조 경기 결승에서 2598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V리그 개막...페퍼스 "올해는 더 높이"

19일부터 6개월 대장정...비디오 판독 늘리고 그린카드 도입
도드람 2024-2025시즌 V리그가 21번째 막을 올린다. 2024-2025 V리그 19일 남자부 대한항공과 OK저축은행 경기(인천 계양체육관), 여자부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수원실내체육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규리그는 2025년 3월 20일까지 6라운드 일정으로 남녀부 각 126경기씩 총 252경기가 진행된다. 이후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챔피언결정전이 펼쳐진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프로배구 출범 20주년을 맞아 이번 시즌 세트 당 비디오 판독 2회, 중간레리 비디오 판독, 그린카드 등 판독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시즌부터는 기존 세트 당 1회 가능했던 비디오 판독이 2회로 늘어나고, 레리 종료 후에만 판독 신청 가능했지만 레리 중간 심판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반칙에 대해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또 불필요한 비디오 판독 시간 단축을 위해 비디오 판독 요청 시 주심의 판독 시그널 전 먼저 인정하고 손드는 선수에게 점수가 부여되는 '그린카드'가 도입된다. KOVO는 최근 마무리된 2024 통영·도드람 컵 대회에 해당 규칙들을 시범 도입했으며, 여자부 경기에서 9번의 그린카드가 발생해 페어플레이 가치를 높였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이예림은 지난 3일 GS칼텍스와 경기 중 상대 스테파니 와일러의 공격이 자신의 블로킹을 맞고 나갔음을 비디오 판독 전 인정하며, 한국 프로배구 최초 그린카드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린카드는 향후 페어플레이상 점수에 반영된다. 정규리그 기준으로 투표 50%와 기록 50%(투 기록 20%+그린카드 포인트 30%)를 적용해 수상자를 정한다. 또 KOVO는 이번 시즌 '신인선수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당해 시즌 데뷔한 선수에게만 적용됐던 신인선수상 범위가 직전 2개 시즌 포함 등록 신인선수로 넓어졌다. 명칭은 팬들의 공모를 통해 '영플레이어상'으로 개편됐다. 한편 KOVO는 오는 17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20주년 기념 KOVO 새 엠블럼과 마스코트, 히스토리 책자, 미래 비전과 새로운 트로피가 공개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사격 우승 전남 배상희 "국제대회서도 성과 내고파"

50m 소총3자세 금·50m 복사 동
전남 사격 배상희(상무)가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강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배상희는 지난 12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50m 소총3자세 개인전에서 459.4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1위에 올랐고, 이후 13일 치러진 50m 복사 종목에서는 동메달도 추가했다. 배상희는 "우승을 목표로 삼고 달려왔다. 체전은 규모도 크고 의미가 있는 대회인 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체전에는 메달을 못 땀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따게 돼서 그동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50m 종목은 바람이 크게 확인하는 등, 경기장의 모든 환경이 나에게 유리할 수 있게끔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 덕분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

